

광주형일자리 GGM 15일부터 양산...상생 새역사 쓴다

**사회통합형 모델...지역 일자리 창출·전국 확산 효과
연말까지 1만2천대 생산...미래형車 거점 부상 기대**

광주형 일자리의 첫 적용모델인 광주 글로벌모터스(GGM)가 오는 15일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지난 2019년 1월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 2년8개월, 2019년 12월 자동차공장을 착공한 지 1년9개월여 만이다.
GGM 양산 돌입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사회 대통합형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의 ▲기획 ▲설계 ▲모델확정 ▲협약 체결 ▲착공 ▲완공 ▲양산 등 전 과정이 성공적으로 완결됐음을 의미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한국 제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은 적절한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구조다.
또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의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 대한민국 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23년 만의 국내 자동차공장 완공 등 무수한 의미와 효과를 남기며 한국 경제·사회에 새로운 역사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GGM은 오는 15일 시판용 첫 자동차 생

산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4개월 동안 1만2천대의 자동차를 생산한다. 내년부터는 7만대 이상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GGM 자동차 공장은 연 10만대 생산 규모를 갖췄으며 향후 증설을 통해 20만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공장은 친환경·디지털·유연화라는 3대 콘셉트로 건립됐다. 현재 라인에서 전기·수소차까지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유연생산시스템도 갖췄다.
특히 공장이 위치한 빛그린산단에 국내 유일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와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무인 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로도 지정돼 있어 명실상부 대한민국 미래형 자동차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GGM에서 생산되는 경형SUV는 2대

주주인 현대차가 개발, 판매, 서비스까지 모두 담당한다. 세계적으로 엔트리 SUV 선호 추세이고, 고령화 1인가구 확대 추세에 맞춰 가성비 좋은 '캐스퍼'가 출시되면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장 완공과 양산이 주는 사회·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고 광범위해 최근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 넣고, 고용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공장 준공과 양산체제 가동으로 인해 1교대 기준 운영인력인 539명을 1차 채용했다. 이 중 광주·전남 출신이 93.4%(498명)를 차지했고, 연령대별로는 0대가 275명(51%)으로 가장 많았다.
GGM은 앞으로 연 10만대 생산 기준

으로 추가 채용을 통해 1천여 명의 정규인력을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장설계, 건축과 생산설비 구축을 포함해 간접 고용창출 효과도 1만1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밀양, 대구, 구미, 황성, 군산, 부산, 신안 등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에 GGM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평화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통해 기존의 노사 갈등 리스크 감소와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리쇼어링 촉진 가능성도 기대된다.
이밖에 공공·민간임대주택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거점형 어린이집과 공동작장 어린이집, 개방형 체육관, 399억원을 투입한 빛그린산학융합지구 조성

등도 성공적인 GGM 연착륙에 힘을 더하고 있다.
광주시는 10개 부서와 4개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업팀을 구성해 근로자 주거비 지원 등 공동복지 프로그램은 물론 노사민정간 의견 공유,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다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처음 가보는 길이라 많은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지만 '봉산개도 우수가도(逢山開道 遇水架橋)'의 고사를 가슴에 새기면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만들자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다"며 "앞으로 GGM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더 많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송지기자

광주도시공사, 에코백 전달 행사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서구 상무금융시장을 방문, 부메랑 에코백 300장을 상인회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메랑 에코백' 캠페인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에코백을 시민들에게 배부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 선정한 올해의 실행 의제 중 하나이다.
이번 행사는 3개 공사·공단의 임직원들이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하고 지역내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광주지역 문제해결플랫폼과 협업해 기획 프로그램이다.
시 도시공사는 수집한 '에코백'을 세탁 전문기관의 세탁 등 과정을 거쳐 상무금융시장 상인회에 기증했다. 특히 지역 환경문제 해결과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에코백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광산구 '비아5일시장' 상인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최시장, 사회적기업 현장방문

이용섭 광주시장(가운데)이 지난 10일 오후 광산구 평동산단 내 사회적경제기업 ㈜멘파스를 방문,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쟁점음

도, 글로벌 수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11월 마무리

전남도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품별 산업단지 배치, 연관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글로벌 수준의 공급망을 갖춘 산업생태계의 종합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해 지난 3월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세부 내용은 ▲해상풍력 부품 제조·조립 단지 현황조사 및 배치계획 ▲도내

해상풍력 연관기업 발굴·육성계획 및 국내외 기업 유치 방안 ▲해상풍력 국산 기자재 개발 연구개발(R&D) 과제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지금까지 중간보고회와 2차례의 점검 보고회를 가졌다.
그동안 해상풍력 부품 제조·조립단지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해외사례 조사와 함께 산단 소재 지자체, 입주기업과 수차례 면담하고 도내 산단별 현황과 장·단점을 분석해 배치계획을 마련했다. 부

족한 가용부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산단 개발도 검토 중이다.
특히 전남도는 터빈, 블레이드, 타워 등 대형 해상풍력 기자재 제조·조립을 위한 가용부지 확보와 해상풍력산업 집적화를 위해 정부에 목포신항 배후단지를 '해상풍력 특화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지속 건의하고 있다.
최근 목포신항 지원부두 및 2단계 배후단지가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해상풍력 부지로 반영돼 예타 조사 등을 거쳐 2026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속 입주를 바라는 기업 유치

를 위해서는 이미 조성한 1단계 배후단지의 '해상풍력 특화구역' 지정이 시급하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남은 3개월의 용역 기간 부품 별 산업단지 배치, 연관기업 발굴·육성, R&D, 인력 양성 등 부문 별 최적의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신남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장은 "8.2GW 해상풍력사업을 토대로 전남 서남권에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 진출 교두보로 육성할 것"이라며 "전남을 넘어 국가 차원의 산업생태계 허브를 조성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최적의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도, 추석 수산물 원산지 특별 지도·단속

17일까지 대형마트·시장 대상

전남도가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수산물 선물세트용 중심으로 원산지 문갑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와 시·군은 물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거짓표

시, 미표시, 위장·혼동표시를 단속한다.
추석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수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돼 ▲명절 제수용·수산물 선물세트 ▲홍어·참돔·가리비 등 일본산 수산물 ▲오징어, 낙지 등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재정기자

전남수목비엔날레 아트페어·마켓 인기

수목작품·생활용품 등 판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1관인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다양한 수목작품과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아트페어·아트마켓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수목 아트페어에선 한국미술협회 목포지부 소속 박화자, 윤창숙, 김영곤 등 32명의 작가가 출품한 수백만원의 작품을 '1가정 1수목화 갖기 운동' 일환으로 50만원 이하로 판매한다.
수목 아트마켓에선 한국전통문화전당, 나주천연염색재단, 한국미술협회(목포지부·진도지부), 시네마MM 5개 기관(단체)에서 마스크, 마그넷, 엽서 등 5천원 안팎의 저렴한 제품부터 수공예품, 천연염색 작품 등 10만원 이내 소품까지 300여점을 판매한다. 관람객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천영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장은 "수목의 대중화와 브랜드화를 위해

훌륭한 작품을 판매하는 아트페어와 아트마켓을 운영하고 있다"며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관람 후 아트페어, 아트마켓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로 2회째인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오해찬란 모노크롬'을 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이란 주제로 10월31일까지 목포 문화예술회관과 진도 윤림산방 일원에서 열린다. /김재정기자



제2회 우리 지역기업 바로알기 공모전

기간: 21. 7. 26. ~ 10. 14. (80일간)

주최

주관

후원

공모주제

구분	분야	세 부 주 제
공통 주제: 우리지역 중소기업 바로알기 및 긍정적인 인식 확산		
일반인	UCC	테마 1 : 다시 보는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 인식 개선, 편견을 개선할 수 있는 주제 ex) 중소기업에 대한 오해와 편견 타파 ② 중소기업과 관련된 좋은(감동적인) 스토리 ex)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가족 구성원과의 좋은 스토리 발굴
		테마 2 : 중소기업의 미래 ① 광주·전남 11대 산업분야에 속하는 지역기업의 역동성, 성장가능성 ② 구직자 입장에서 중소기업에게 바라는 희망의 메시지
UCC	슬로건	테마3 : 내 가족이 갔으면 하는 기업 ① 부모님이 여기는 갔으면 하는 기업 ② 동종 업체 대표가 추천하는 기업 ③ 내 친구, 내 동생도 같이 일 하고 싶은 기업
		'중소기업은 00다'를 주제로 자유공모
학생	포스터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돕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중소기업 외면현상 의식 일깨우기 등
중소기업	자유수필 수필 수기	재직중인 중소기업 자랑(기업의 변화, 기업의 노력 등) 즐거운 회사생활 에피소드 중소기업에 다니는 나의 목표 및 비전 등

응모자격 **광주시민 누구나**

·학생 분야: 초 / 중 / 고
·중소기업인 분야: 중소기업 재직자
※ 공모전 참여 시 1만원 상당의 기프트콘 추천 증명

시상내역 **총38편 시상**

구분	일반인		학 생	중소기업업체 자유수필
	UCC	슬로건		
대상	2,000/1편	300/1편	400/1편	1,000/1편
최우수상	1,500/1편	200/1편	각350/2편	500/1편
우수상	각 700/2편	각100/18편	각250/7편	각 300/2편

·대 상 : 광주광역시시장, 광주광역시교육감상
·최우수상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상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상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상
·우 수 상 : 한국광산업진흥회장상
※ 시상내용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시상금은 세전금액이며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

응모방법

·이메일 제출: dyhwang320@kapid.org
·온라인 제출: 광주잡넷(www.gwangjujob.net)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작품설명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응모각서, 제출작 - 제출시 메일 제목: [공모전] 분야, 지원자명(팀명)
※ 세부 응모요강: 한국광산업진흥회(www.kapid.org) 홈페이지
 광주잡넷(www.gwangjujob.net) 공지사항 확인

결과발표

21.10.25(월) 한국광산업진흥회 및 광주잡넷 홈페이지 발표
(당선자 개별 연락)

문 의

중소기업 인식개선 공모전 운영국
· 전 화 : 062)605-9616
· 이메일 : dyhwang320@kapid.org

CMYK